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이 가득한 만민의 역사 가운데 5월이면 더욱 생각나는 기쁘고 행복한 일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긍정적인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며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무지개, 오로라 빛, 영 분리 사건으로 천국 소망이 더해진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설렘으로 가득했던 당시를 회상한다.

“참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사랑”

결혼 9년 만에 딸을 낳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애 최고의 행복을 체험하는 등 말씀과 권능으로 충만한 성도들.

만민뉴스

제739호 2016년 5월 2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우며, 하나님 영광이 드리운 천국의 소망으로 행복합니다”



만민의 역사에는 늘 하나님 사랑과 축복이 넘쳤다. 풍성한 생명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무수한 영혼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특히 5월이 되면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지난 34년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978년 5월, 하나님께서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장로를 꿈꾸며 기도하던 이재록 집사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권능을 받고자 무수한 금식을 쌓아 신학교 4학년 재학 중인 1982년에 '만민교회'를 개척했다.

1984년 5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기도하는 이재록 전도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일을 맞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천국에 대해 밝히 알려 주기 시작하셨다. 그 결과 현재 『천국』 책 상권 27개, 하권 14개 언어로 발간되어 많은 영

혼을 구원하고 있다(사진⑦).

1986년 5월,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전국 곳곳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하며 문서, 방송 선교를 통해 전 세계 만민을 마음에 품고 영혼 구원에 힘쓰도록 축복하셨다.

그리하여 1993년 5월부터 매년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를 개최해 국내외 성도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목도케 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듣고 병어리가 말하며 앓은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 임태하지 못했던 수십 쌍의 부부가 한꺼번에 임태의 축복을 받는가 하면 암, 에이즈 등 각종 질병을 치료받아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과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1998년 5월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주제로 열린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를 통해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계 4:3)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이후 3중, 4중 원형 무지개는 물론, 일자, 대칭, 비대칭, K자, 반지 모양, 복합적인 형태 등 희한한 무지개 출현이 계속되고 있다(사진①②③, 3면 참조).

특히 2004년 5월,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는 주제로 열린 마지막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위성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며 사복음서에 나오는 각종 기사와 표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사진⑧). 그 결과 복음이 시작된 곳이지만 복음의 오지가 된 이스라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

2011년 5월부터는 영의 세계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휴대폰에 근본의 빛을 느낄 수 있는 오로라 빛의 형상들이 촬영되었다. 천사, 하트, 물고기 등 형형색색 고운 빛깔의 형상들(사진④⑤⑥)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주님 닮은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더욱 사모하며 신속한 믿음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었다(3면 참조).

2013년 5월, 하나님께서는 이재록 목사의 간절한 산상기도의 응답으로 성결한 주의 종과 일꾼, 8명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존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3면 참조).

2014년 5월부터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과 온 영의 마음을 이룬 성도들을 산상기도처에 초청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특히 2016년 5월에는 만민의 미래인 학생주일학교 학생들이 선한 믿음의 경주를 통해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를 변화시키는 영적 장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상기도처에 초청해 천국 소망을 마음 가득 심어주었다(사진⑨).

이처럼 행복한 5월을 맞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꼬?” 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딤후 4:5).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23)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한 대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나 응답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행함’이므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한 최소한의 행함입니다.

그런데 간혹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면서도 부정적인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강박해 전도가 안 돼요.”, “난 마음도 타고난 기도 좋지 않아서 믿음 성장이 안돼요.”, “못해요. 안돼요. 될까요? 할 수 있나요?” 이것은 모두 부정적인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붙잡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 문제는 너무 커서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문제가 크든 작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술의 부정적인 고백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이 작은 분으로 만든다면 이는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원수 마귀 사단에게 올무를 잡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아도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이 씨앗이 되어 결국 ‘온전한 믿음’이라는 열매로 맺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귀신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한 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왜 믿음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권세 앞에 간

절한 심정으로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에게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없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려면 아버지 자신이 믿어지는 믿음을 내보여야 함을 깨달은 것이지요. 자신의 믿음이 너무 작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한 것입니다.

비유컨대, 아들의 병을 고칠 약을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아버지가 겨우 약을 찾았지만, 막상 약값이 턱없이 부족해 도와달라고 애걸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과 같습니다. 옳되려 빌어서라도 간절히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도와주소서”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왔는지,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그 정성과 간절함도, 진실함과 겸비함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결국 예수님께서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린 아들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정성을 내보여야 하지요. 죄의 담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정성과 기쁘시게 하는 행함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고,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응답의 확신이 와서 결국 믿음대로 응답받을 수 있게 되지요.

3.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귀신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간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 간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행함이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

고, 에스겔 36장 36~37절에는 “... 나 여호와와 말하였으니 이루어라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했지요.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하되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올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부르짖어 기도하셨지요.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는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큰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지요.

우리도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불가능한 일을 응답받기 원한다면 그만큼 인내와 수고로 공의를 쌓아야 하지요. 이처럼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면 점점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가 응답받으려면 이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행하며, 이렇게 심어야 한다.”라는 성령의 음성, 주관에 받게 되지요.

변함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응답의 길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반면에 성령의 주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니 믿어지는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릇을 잘 준비하여 응답과 축복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 단번에 응답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긍정적인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며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응답받아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들려 간질을 일으키며, 자주 불과 물에 들어가 죽을 뻔하여 늘 근심 속에 사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응답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질병이나 사업, 가정의 문제 등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으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입술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를 보면 응답받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 도와주소서”라며 소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며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하지요. 이는 믿어지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앞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말씀으로 어둠이 떠나고, 아버지의 부정적인 생각이 제어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은 선한 마음과 지식적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항상 긍정적인 고백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
|---------------------|----------------------------|
| 주일 대예배 | 1부 10:00 AM 2부 11:30 AM |
| 주일 저녁예배 | 3:00 PM |
|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 9:00 PM |
|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 11:00 PM |
| 금요일예배 | 11:00 PM |
| 수요일예배 | 7:00 PM |
|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 8:00 PM |
|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 9:00 PM |
|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 4:00 PM |
| 토요일예배 [아동부] | 3:00 PM |
| 다. 일월야 기도회 |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
| 새벽예배 |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의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천국 소망 넘쳐요”

최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갖가지 영적 체험을 허락하신다. 그 가운데 세 가지 표증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본다.

“세상에 이런 무지개가 다 있다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계 4:3)

김새렘 자매 (29세, 무안만민교회)



1998년 5월 15일, 만민중앙교회에서 수많은 성도가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상공에 해 주변을 두른 원형 무지개가 떴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사나 선교가 이뤄지는 현장에는 기이하고 희한한 무지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주 출현했지요.

2011년 1월 19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를 중심으로 한 원형 무지개와 그 위에 양 옆으로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듯 독수리 날개처럼 생긴 무지개가 걸쳐 있고, 그 위로 반원형 무지개와 부채꼴 모양의 무지개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형태의 무지개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사진).

그날 아침, 아버지 김명술 목사님(무안만민교회 담임)이 놀란 모습으로 집안으로 뛰어 들어오시며 “하늘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뛰어나가 하늘을 보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너무나 놀랐지요. 부랴부랴 카메라를 메고 무안단물터 동산으로 뛰어올라갔습니다.

무지개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어안렌즈로도 담기가 어려워 저는 땅바닥에 드러누워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원형무지개에 대칭무지개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지개의 모습이 다양하게 바뀌었지요. 함께 있던 성도님들과 환호성을 지르며, 촬영 내내 감사와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느껴져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표증을 카메라에 담노라



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밀려오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니 천국 소망이 더해져 영적인 믿음도 성장했습니다.

신비로운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목자의 권능을 통해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름다운 오로라 빛으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겔 1:28)

김옥주 권사 (55세, 2대대 11교구)

저는 남편의 해외 근무로 오랫동안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했지만 자상한 아들이 있어서 의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군 복무를 하게 되자 저는 그리움과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어 눈물로 지내며 기



도할 힘조차 잃었지요. 점차 기도를 하면서 힘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허전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1년 5월 20일,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성도들에게 영의 공간에서 나오는 하나님 근본의 빛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할 때 다양한 형

태의 오로라 빛의 형상이 찍혔지요. 천국을 연상할 수 있는 빛들이 물고기와 과일, 꽃 등 다양한 형태로 촬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도 천사 모양과 천국의 사과를 연상하듯 사과 모양을 찍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어느 날에는 십자가를 촬영하였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사진).

이후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롭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전한 마음이 순간에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 믿음과 소망이 더해졌지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오로라 빛의 형상으로 위로해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 영 분리를 통해 더욱 확신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사 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고후 12:2)

김환상 집사 (57세, 1대대 9교구)

2013년 5월 25일, 금요철야예배 2부 시 저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성결한 주의 종과 일꾼들, 여덟 분이 한자리에서 영이 분리되어 천국의 각 처소, 지옥과 음부를 보고 오셔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사진).

성경에도 사도 바울의 몸에서 영이 분리되어 천국을 보고 온 고백이 기록되어 있지요. 간증자들이 즉석에서 천국 처소와 지옥

에 대해 생생히 들려주니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간증을 듣던 제 앞에 갑자기 휘황찬란한 천국의 꽃밭이 광활하게 펼쳐졌습니다. 단지 꽃밭만 봤음에도 매우 평화롭고 황홀했지요. 이어 하나님께서는 불못에서 독만 내놓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절하고 참혹한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후, 저는 당회장님의 저서 『천국』과 『지옥』을 읽으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며

천국 소망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지요. 그 당시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기에 이 일은 제게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3-4남선교회 임원으로, 남장년 구역장으로 열심히 충성하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소망을 품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분을 알게 하시고 참 소망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의 말씀은 제 생애 최고의 행복입니다

신현상 집사 (77세, 부산만민성결교회)



저와 아내는 3년간량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참된 목회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되었지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를 읽었는데, ‘와~ 이젠 세상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66권을 핵심으로 담아 놓은 정말 쇼킹한 책이었지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어 누구나 읽어야 하는 내용으로, 특히 주의 종이나 신학생들에게는 필독서입니다. 저는 이 소중한 책을 주의 종이나 지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책 또한 믿음을 단계별로 풀어 주시며 자신의 믿음을 정확히 알

고, 그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니 정말 놀라기만 합니다.

이처럼 당회장님의 설교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 영과 온 영의 마음에 대해 자세히 증거해 주시니 이런 설교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GCN방송(www.gcnetv.org) 프로그램 중 ‘창조와 과학’을 즐겨 보는데, 당회장님의 창세기 강해를 바탕으로 인체의 신비, 천체, 피라미드 등을 잘 풀어 주시니 성령의 감동 속에 풀어진 생명의 말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가르치시는 당회장님의 겸손과 희생의 삶은 주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니 ‘마치 예수님의 네비

게이션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저는 성공하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아내나 자녀들에게 잘해 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의 삶을 통해 감동이 되었고, 성경 말씀 그대로 행하며 증거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이제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요즈음 저는 제 생애 최고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기까지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헌신하신 당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 때 귀한 생명의 목자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9년 만에 예쁜 딸을 낳았어요

샤티야 성도 (32세, 인도 마두라이만민교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힌두교 가정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습니다. 2006년 12월에 결혼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상담하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발견되어 난소낭종 절제 수술을 받아 결국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었지요.

2014년 10월, 여동생의 전도로 마두라이만민교회(담임 퍼시얼 전도사)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GCN방송을 통해 서울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창조

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각종 질병 치료와 임태의 축복, 응답받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중, 교회 창립 19주년 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가 열려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담임 한정희 목사님에게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으로(행 19:11~12) 기도를 받았습다. 또한 하나님 권능이 담긴 무안단물(출 15:25)을 매

일 믿음으로 마시고, 어떤 음식을 먹든지 음식에 뿌리고 먹었지요. 오직 믿음으로 꾸준히 행한 결과 2015년 7월, 임신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의사는 제 임신 소식이 기적이라고 말하며 매우 놀라워했지요. 마침내 결혼 9년 만인 2016년 2월 22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제게 예쁜 딸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지외반증과 고혈압을 치료받았습니다

이현우 집사 (55세, 2대대 11교구)



저는 2년 전에 210 mmHg(정상인 120/80 mmHg 이하)이던 고혈압을 손수건 기도(행 19:11~12)로 치료받았습니다. 최근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신앙이 새로워져 얼마나 행복한지요.

작년 7월경부터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검지발가락 쪽으로 휘면서 불더니 나중에는 엄지발가락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지외반증이 생긴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통증이 심해졌고, 구두를 신을 수 없

어 편한 신발을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미세하게 발을 절기 시작했지요.

저는 하나님께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신앙생활 전반을 돌아보며 소홀히 했던 분야를 회개하였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확실히 하고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각종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며 기도하기를 힘썼지요.

올해 2월 21일 주일 대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마

음 다해 받았습니다. 그 뒤 어느 때처럼 신교회 모임 등 교회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어느 순간 보행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성큼성큼 걷는 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살아 계셔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며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영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책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광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양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